

이용자 정보욕구 만족시키는데 앞장

KISEC의 태동으로 국내에서도 정보검색사들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해 지고 있다. 한발 먼저 정보검색사가 출현한 외국의 사례를 통해 국내 정보검색사들이 치중해야 할 부분에 대해 살펴봤다. <편집자 주>

안계성/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교육사업과 과장

1970년대 초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검색시스템이 처음 출현한 이래 정보의 폭발적인 증가와 함께 복잡하고 다양한 검색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특히 데이터베이스 수는 1979년 300개에서 올해초 현재 5,677개로 증가하였으며, 국내에서도 지난해 말 1,667개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다양한 데이터베이스의 수적인 증가는 기본적으로 정보기술의 발전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이러한 데이터베이스의 이용자에 대한 성향도 최근에는 정보수집의 수단으로 인터넷의 활용이 급증함에 따라 특정 소수계층에서 일반 다수계층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특정계층에서 불특정 다수로 확산

따라서 정보 통신망을 활용한 정보이용은 특정계층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일반적인 현상이 되었다. 더우기 정보이용이 국내에서는 물론 외국에서 생산된 것

도 시간과 거리에 구애되지 않고 어느곳에서나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고, 이를 위한 기반으로 범 정부차원에서 초고속망 구축사업을 2015년까지 완성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초고속망을 통하여 국내외 대용량의 각종 멀티미디어 정보를 고속으로 전달받을 수 있고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복잡하고 다양한 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인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정보의 발전 현상과 더불어 최종이용자를 대신하여 필요한 정보를 찾아주는 다양한 정보관련 업종이 생겨나게 되었다. 특히 정보 선진국에서는 정보시스템이 출현하면서부터 이용자에게 정보를 대신하여 찾아주는 전문가(Searcher)를 양성하여 다양한 정보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적합 정보를 검색하여 제공하는 정보검색사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조류를 타고 국내에서도 외국의 데이터베이스 이용이 가능해지고, 국내에서 제작한 데이터베이스도 증가하면서 정보 이용과 의사결정을

지원하여 주는 정보검색사가 연구기관, 대학, 기업체를 중심으로 출현하게 되었다. 이들은 현재 전문인으로서 사회적으로 각광을 받는 직업으로 소개되고 있다.

이런 주변 상황에 맞추어 여러 기관에서 최종이용자로서 정보이용이나 정보이용을 대신해서 수행할 정보관련 검색사 자격제도를 시행하게 되었고, 취직을 앞둔 학생이나 전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매력있는 자격증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따라서 정보이용자를 대행하거나 최종이용자로서의 정보검색사는 정보이용의 조류로 볼 때 다양한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이용자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전문가라는 점과, 국가의 경쟁력 향상과 국가 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정보를 다룬다는 측면에서 볼 때 이들의 역할과 책임은 정보 선진국으로 진입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다.

외국 사례

미국에서는 '70년대 중순 정보혁

명이 일어나면서 정보시스템을 이해하고 정보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는 방법에 능통한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독자적인 정보이용 전문가가 발생하게 되었다. '87년에는 위스콘신 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이자 Information Express 사장인 Dr. Marilyn Levine은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전문가 집단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26명의 인원으로 전문가 협회인 AIIP(The Association Independent Information Professionals)를 만들게 되었다.

이 협회의 회원은 주로 온라인 검색, 수작업 조사, 문헌제공, 데이터베이스 디자인, 컨설팅, 집필 및 출판 등과 같은 정보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의 사장이었다. 이 협회의 목적은 회원간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전문가들의 지식과 이해를 향상시키는 데 있다. 현재 회원수는 약 800명이 등록되어 있다.

협회에서는 회원을 위해 계간으로 뉴스레터를 발행하고 있으며 매년 회원의 디렉토리를 발간하고 컨퍼런스를 열고 있다. 또한 밴더 파트너가 있어 회원에게는 할인혜택을 주고 있으며 인터넷 listserv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다양한 주제의 토론내용을 담은 가이드북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협회는 정보 이용자의 측에서 일하는 전문가들이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전문가로서의 지식과 경험에 대한 교환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OUG(Online User Group)는 60여개 기관과 7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일본의 정보 이용자 전문 집단으로 주로 온라인 정보검색의 보급 및

서치의 양성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정보과학기술협회 산하의 조직이다. 활동은 주로 연구회 및 분과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정보이용자에게 필요한 각종 정보를 교류하는 장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연구회의 활동은 회원의 지식 향상 및 연구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정보분야 전반을 다양한 주제로 연구하며, 분과회에서는 화학, 생명과학, 비즈니스, 특허 등의 분과로 나누어 상용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지식 습득 및 검색기술에 대한 교류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초보 이용자에게는 서치입문을 개설하여 정보이용에 대한 지식습득을 도와주고 있다. 이러한 각종 정보를 알리기 위해 뉴스레터를 매월 발행하고 있다.

영국의 온라인 이용자 집단인 UK-OLUG(UK Online User Group)는 온라인과 CD-ROM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사람들의 집단이다. 이 그룹은 CD-ROM과 온라인 개발 및 훈련기회에 대한 정보 채널, 지식과 경험에 대한 교류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데이터베이스 이용자 집단으로서 활동하고 있다.

회원들을 위해서는 다른 회원들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출판물의 구입과 워크샵 및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으며 격월간으로 뉴스레터를 발간하고 있다. 또한 데이터베이스 품질을 모니터링하고 장려하는 것을 도와준다.

이밖에도 Southern California 온라인 이용자 집단인 SCOUG, 유럽 지역 온라인 이용자 집단인 European Online User Groups과 오스트리아,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아

일랜드, 스코트랜드 등에도 온라인 이용자 집단이 있는데, 이러한 이용자 집단도 대부분 정보 이용자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전문가들의 지식과 경험을 교류하기 위한 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다양한 이용자 관련 사업을 통하여 데이터베이스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국내 사례

국내에서는 그동안 연구기관, 기업체, 대학을 중심으로 정보화에 발맞추어 각종 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왔다. 또한 정부기관에서도 국민의 정보이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각종 전산망을 준비하고 응용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이런 정보를 이용하는 수요자 측에서는 고품질의 좋은 정보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하지만 국내에서는 그동안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측면에만 힘을 쏟고 이용자의 측면을 소홀히 한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이용자측을 대변하여 정보 이용자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한국 정보검색위원회의 창립은 정보선진국에 비해서는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스런 일이라 할 수 있다.

한국정보검색위원회는 국민의 정보이용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국내에 정보검색 관련분야를 널리 알리고 이 분야에 대한 기술보급과 전문인력을 배양하기 위한 각종 연구 및 사업활동을 수행하며 같은 관심사를 갖는 이들의 지식과 경험을 교환하고 정보 이용자를 대표하여 정보이용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997년 3월 14일 한국데이터베이스 진흥센터 산하로 발족했다.

이 위원회는 32명의 정보검색 전문가로 이루어져 있으며 PC통신 이용자를 거점으로 하는 정보이용자를 대변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구성되었다. 더군다나 대부분의 기관에서 이용하고 있는 인터넷의 확산은 온라인 정보검색의 환경을 더욱 좋게 만들어 무분별한 정보를 이용자들이 필터링되지 않은 상태로 대량의 정보를 취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위원회의 조직은 정보이용의 확산에 따른 각종 교육과 양질의 정보를 유통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정보이용자 측면에서 볼 때 기대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현재 국내에는 각 기업체를 비롯한 언론사, 대학, 연구소 등에서 정보검색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가 약 400여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현장의 실무자들로 주로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사람이거나 각 주제분야를 전공하고 실무나 교육을 통하여 검색기법을 익히고 오랫동안 한 분야에서 일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이 담당한 업무는 이들이 속해 있는 기관의 목적달성을 위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실무 담당자들이 중심이 된 각 분야의 검색 전문가에 의한 위원회의 구성은 외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위원들이 속한 기관의 이익은 물론, 국가적인 차원의 이익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21세기는 정보자원과 이를 통하여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는 우수한 인재를 가진 기업이 흥하고 이것을 가진 국가가 국제 사회를 이끌고 갈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동안의 물질적인 자원으로는 1차적인 목적밖에는 해결하지 못한다. 때문에 이런 정보를 관리하고 이를 검색하여 창조적인 일에 투자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것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시점에서 정보검색 전문가 집단은 무한한 정보를 대하는 이용자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정보를 생산하는 사람들에게 이용자가 원하는 고품질의 부가가치가 높은 정보를 생산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낙후된 국내 데이터베이스 산업을 육성 발전시킬 수 있는 거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원회에서는 이를 위해 이 분야와 관련된 기술의 보급과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물론, 이용자 측면을 대변하여 각종 연구 및 사업을 활발히 전개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정보이용자들이 큰 부담으로 느끼고 있는 통신망 및 데이터베이스의 이용체계를 개선한다든지 각종 정보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의 이용 및 검색에 따르는 교육과 홍보, 검색의 표준화를 통한 이용자측의 배려, 정보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의 이용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하여 정보제공자나 대정부 건의를 통하여 정보이용 환경을 극대화 해야 하며, 이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용자와 관련한 각종 조사와 연구를 지속적으로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정보이용자에게 편리한 이용수단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마련에 항상 노력해야 하고 이용자를 대변한 전문가 집단을 통하여 우수한 양질의 정보가 유통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이용자를 위한 사업에도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효과적인 유통에 감시, 평가 뒤따라야

국내에서도 정보 이용자를 대표하여 정보이용에 관한 각종 업무를 수행할 한국정보검색위원회가 창립됨에 따라 많은 주변 여건이 변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동안의 데이터베이스 제작 측면의 중심에서 벗어나 각 정보 시스템들은 이용자에게 적합한 정보를 편리하고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루트 마련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고,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비용면에서도 경제적이고 최소한의 노력으로 양질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외국에서는 정보의 질을 평가하는 기관까지 생겨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국내에서는 이들 전문가 집단을 활용하여 무분별한 정보가 최종 이용자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평가하며, 모니터링을 통한 정보이용의 효율화를 꾀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이를 통해 개인은 물론 기업을 비롯한 각 조직과 국가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정보가 유통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가 정보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야 하고, 이로 인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며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QC**